

“역전지구대, 정읍역 막아 이전 필요”

제3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이학수 시장, 필요성 강조 국·공유지 상호교환 등 논의



이학수(오른쪽 두번째)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제3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에 참석, 정읍역 앞 역전지구대 이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 역전지구대 반드시 이전 해야합니다.” 정읍시 이학수 시장이 정읍역의 관문인 정읍역 앞 전방을 가로 막고 있는 역전지구대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읍시는 이 시장이 최근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제3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에 참석해 역전지구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공유지 상호교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국유재산 정책을 공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운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김선조 대구 행정부시장 외 3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이학수 시장 외 4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역전지구대 이전사업은 정읍시민, 정읍경찰서, 정읍시 모두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역전지구대는 근후환경이 열악해 환경개선

이 시급한 상황이고, 지구대가 정읍역 정면을 가로막고 있어 관광객들이 정읍역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읍역 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전지구대의 이전이 필수요소”라며 국유지인 역전지구대와 사유지인 이전부지의 상호교환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김운상 차관은 “역전지구대 이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예산이 확보되면 국·공유지 교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읍역전지구대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 영선고, AI특화 직업계고 전환

전북교육청 내년부터...신산업 분야·AI 소프트웨어과 재구조화

고창에 위치한 영선고등학교가 AI 특화 직업계고(가칭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로 탈바꿈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영선고가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돼 2025학년도부터 AI소프트웨어 분야 특화 직업계고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영선고는 그동안 보통과 1학급과 전문계열 학과인 자동차과, 생태조경과 각 1학급씩 3학급을 운영해 왔다.

특히 자동차과와 생태조경과가 전국 기능경기대회 자동차도장, 화훼 장식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신산업·신기술 분야 연수 및 선진학교 방문 등을 통해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AI소프트웨어과 2개 반으로 재구조화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년 트랙인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에 1년에 운영하는(패스트트랙)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정 컨설팅, 정보·컴퓨터 부전공 연수, 인공지능 대학원 운영 등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와 함께 전북글로벌특성화고를 병행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7억5000만원의 보통교부금에 대응투자할 방안을 전북자치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핵심과제로 삼아 전북직업교육센터 설립,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정책이 직업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핵심과제로 삼아 전북직업교육센터 설립,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정책이 직업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고품질쌀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남원·운봉·지리산·춘향골 통합 미곡처리장 추진...공동브랜드 육성

남원시가 남원쌀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통합 미곡처리장(RPC) 설립을 추진 중이다.

RPC 통합대상은 남원, 운봉, 지리산, 춘향골 등 4개 지역농협이며 이들 농협은 지난 4월 통합RPC 설립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추진협의회를 통해 남원시와 4개농협은 ‘남원시 통합RPC’ 설립 추진 실무협의회와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RPC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남원시는 수립해 둔 ‘2024-2028 식량산업종합계획’에 따라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과 벼 건조장사설

(DSC) 구축,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 등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RPC 추진 본격화를 위해 통합RPC 운영모델 수립, 실행계획 제시,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추진 등의내용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16일·17일 당진, 서천 등 4개 지역의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라며 “통합RPC 설립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정보를 토대로 남원시 통합RPC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소비자가 품질 인증한 ‘고창 멜론·땅콩·미니수박’

‘2024 품질만족 대상’ 수상

멜론 8년 연속·땅콩 7년 연속

고창의 명품 농산물 멜론·땅콩·미니수박이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최근 서울 코리안호텔에서 열린 ‘2024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의 멜론·땅콩·미니수박 지역 농산물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품목에 수여된다.

고창 멜론은 8년 연속, 고창 땅콩은 7년 연속 대상이며 미니수박은 전국 최초 수상이란 타이틀로 명실상부 최고품질 고창농산물의 위상을 높였다.

군은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박의 뒤를 이을 품종이 미니수박이라 판단, 미니수박을 고소득 작목으로 선정해 지난 2017년부터 각종 시범사업과 교육을 추진해 왔다. 또 2022년에는 고창군 6개 작목반이 하나로 품채 고창미니수박연합회를 결성, 올해부터는 전국 재배면적의 15%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은 멜론을 최고특산물로 육성하고자 각종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최고품질의 멜론 재배력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철태(앞줄 왼쪽 다섯번째) 고창군 부군수와 각 작목별단체 관계자들이 ‘2024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2023년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싱가포르와 홍콩 수출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고창 땅콩 역시 황토땅에서 자라 고소한 맛과 선명한 표피색 등 땅콩의 영양적 가치와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산 땅콩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재배면

적도 꾸준히 늘어 현재 400ha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도내 재배면적의 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덕선 고창군수는 “농업인들의 탐과 정성, 노력이 가득 담긴 고창 멜론과 땅콩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전국 최초로 선정된 미니수박도 주산지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AI-IoT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호평

건강관리 앱 활용 어르신 실시간 모니터링·컨설팅 등 제공

남원시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진진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618명의 어르신 건강관리를 담당하며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건강측정기기(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를 연동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인력이 비대면 건강컨설팅과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

미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일원화하여 일대일 대면 건강관리를 병행하여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화면형 AI스피커 제공으로 스마트폰 미보유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건강자조모임 구성·운영으로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수행을 돕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해 어르신 맞춤형 ICT 교육을 19일 실시할 예정이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상(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